

세잔느에게 있어 그림은 그의 세계였으며, 그가 살아나가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세잔느의 그림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치열했던 삶의 이야기가 묻어나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나 병역 기피 죄로 경찰에 쫓기면서도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 이 모두가 그가 남겨놓은 그림이 있기에 결코 과장되게 느껴지지 않는다. 세잔느에게는 항상 그림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회의는 죽음에 견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설사 회의의 대부분이 자신의 불확실함에 던져진 의문에 지나지 않았다 해도, 결국 그 고통스러운 회의와 의문이 있었기에 최후에 빛을 발하는 영광도 있었다.

정현자의 사진을 말함에 있어 세잔느를 언급한 것은 최소한 그녀에게도 유사한 이야기가 내재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이 제작한 사진에 대해 고민해왔다. 물론 그 고민의 출발점은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그녀를 감싸고 있는 삶의 구조에서 비롯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세잔느처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였고, 나아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녀가 자리해온 삶의 자취가 마치 거울에 비추듯 쏟아져 내림을 느낄 수 있다.

정현자의 사진은 전체적으로 조형성이 강조된 사진이다. 그래서 사진이 정갈하고 담백하다는 인상을 준다. 특히 잔잔히 가라앉는 흙빛 짙은 색 (그녀가 낸 암부의 스크래치는 마치 짙은 색을 연상케 한다.) 위에 놓여있는 꽃 한 송이 한 송이 마다, 그리고 얽드린 조개껍질 하나하나 마다 정갈함을 넘어 청아함이 넘쳐난다. 그러나 그녀의 사진이 새롭고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비단 그녀가 선택한 오브제들, 이를테면 양귀비, 글라디올러스, 작약, 나리, 조개, 또는 돌 때문이 아니다. 또 그것은 이국적인 소재, 이국적인 미가 주는 낯설 때문도 아니다. 그녀의 사진이 새롭고 신선할 수 있는 것은 오브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그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모습 뒤에 지속되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현상 뒤에 좀 더 은밀하고 내면적인 어떤 것이 있으며 일관성 있게 혹은 변화하면서 지속되고 있음을 믿는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그녀의 은밀하고 내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일관되게 변화하고 지속되는 것들, 그것들의 실체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신화와 초혼일 것이다. 여기서 신화는 감춰진 이야기고 초혼은 그 이야기를 불러내는 것이다. 그녀의 신화, 즉 감춰진 이야기는 생에 관한 이야기이며 특별히 보편적 물상 (주로 퇴적된 사물)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이야기이다.

‘Indoors & Outdoors (2인전 타이틀)’, 즉 ‘안과 밖’의 모든 삶은 아름답다는 정현자의 메시지, 그것이 특별한 것이든, 아니면 평범한 무명의 것이든, 각 개개의 삶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임을 그녀는 이야기한다. 특히 그 삶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리고 또한 감춰둔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름다움은 더욱 큰 것임을 그녀는 말한다. 그녀가 한 사람의 작가로 성장하기까지, 스스로를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들은 것들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또 순수한 마음으로 토해낸 사진들은 마치 세잔느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경험하게 한다.